

문재인 “호남 대권 후보 키우겠다”



문재인 “호남은 어머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유세를 시작하기 전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첫 유세 ... 호남 인재 육성 ‘한전공과대’ 설립 공약
국민의당 ‘참여정부 호남 인사 확대’ 총공세 ‘쟁점화’
민주당 ‘호남 인사 190명 발탁...출대론은 가짜뉴스’

‘선택 2017’ 대선 D-2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8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총력 유세에서 “호남에 대한 인사차별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인재와 호남의 미래 정치세력 육성, 민주당의 호남출신 젊은 지도자들이 출몰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며 호남 인재 육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2·3·4·5면〉
문 후보는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노무현 정부에서 아시아문화전당, 나주혁신도시, 한전 이전, KTX 호남선 노력할 때 다른 후보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서 “호남을 위해서 뭐 하나 한 일이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며 안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하는 ‘한전공과대’를 에너지벨리에 설립하고, 광주공항 이전 부지에 4차 산업 거점으로 만들고, 군 공항 이전은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호남 미래발전을 위한 ‘메가톤급’ 추가 대선 공약과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등 호남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문 후보가 호남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추가 지역 공약을 내놓은 것은 대선 초반 노무현 정부의 ‘호남인사 확대론’이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등이 나서 광주와 전남 유세현장을 돌며 노무현 정부 당시

호남 인사 차별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는 국민의당이 참여정부의 ‘호남 인사 확대론’을 또 다시 대선 초반 쟁점화 시키면서 호남의 ‘반문(反文)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4·13 총선에서 호남인사 확대론이 광주·전남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호남인사 확대론을 가짜뉴스로 지칭하고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 대응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호남 확대론을 통한 사실 왜곡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특정세력의 정파적 야욕에서 비롯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문 후보를 비방하는 세력은 참여정부 때 문재인이 호남인사를 확대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데도 이런 거짓 선전이 선거철마다 유행하면서 마치 사실인양 오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많은 호남 출신 인사를 발탁했으며 확인된 숫자만 19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광주·전남 유세에서 호남인사

차별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화순 5일장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는 호남인사를 차별했다.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 사람들의 자존심도 망가뜨렸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호남인사 차별하지 않고 예산차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후보 측 홍보본부장은 말은 김정진 의원도 이날 시의회 브리핑을 찾아 “노무현 정부 때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숫자가 확연히 줄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중간 간부급 지역인사의 기반이 모두 무너졌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양당이 호남인사 확대론에 대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지역민의 민심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호남 확대론은 호남의 ‘반문 정서’의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남은 선거일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고, 국민의당은 이를 유세과정에서 최대한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호타이어 공정한 재입찰 촉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 않기로

대선 후 매각 상황 바뀔수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정한 재입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14면〉

박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에 있는 금호아시아나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최종 통지해왔다”며 “이러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매각 절차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으며 우선매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자 금 마련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계속 불허하자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 “법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금융권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러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매각이 진행되어 금호타이어의 기업가치와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을 포

함하여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의 이러한 공식 입장은 법률적, 정치·경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변수를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하려는 금호타이어 주식은 6636만여주(지분율 42.01%), 9550억원어치다. 채권단이 20일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거래를 시작하면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치르고 마무리할 수 있고, 정부승인과 관련해서 1개월, 또 채권자의 요청으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금호타이어가 중국업체로 넘어가는 데 대해 금호타이어 임직원과 협력 업체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 대선을 치르고 난 뒤 정부 차원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기뜰이나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대선 후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장까지 출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블스타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금을 치르고 거래를 종료하면 박 회장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발굴 맨

즉시 작업 중단하고 신원 확인

선체 수색 유류품 쏟아져 나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18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선체 내부 수색을 본격화하면서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날 유류품 00점이 발견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미수습자의 유해도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1시께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샐배지 직원과 해경·국과수·해수부 관계자를 4층 객실로 들여보내 수색작업을 시작했다.

5·18 왜곡 남재준에 법적대응 ▶7면

청년이 미래다 - 희망야학 ▶18면

KIA 김민식 트레이드 효과만점 ▶20면

수색 개시 1시간30분만에 선체 좌현(바닥) 쪽에서 ‘백팩’ 형태의 가방, 여행용 캐리어, 옷가지, 학생태터이, 빨간색 구명조끼, 신발 등 유류품 18점이 속속 나왔다. 이름표가 붙어있는 가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품이 다수 발견되면서 미수습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선체 내 수색 중 뺏조각 추정 물체가 나오면 작업을 중단하고 유해발굴전문가와 신원확인팀 등이 투입돼 현장을 보전하고 증거를 채취하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에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광주일보 창간 65주년을 축하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희망,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생활권 선도사업, 새뜰마을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도시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을 최고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입니다.



Happiness 국민 행복 제강
Opportunity 균등한 기회 제공
Partnership 자율적 참여와 협업
Everywhere 어느 곳에서도 보장받는 삶의 질